

# 개화기 부산 근대학교 형성의 지역별 성격 연구

최두진\*

##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개화기 부산의 지역 형성
- III. 개화기 부산 지역의 학교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개화기 부산의 근대학교가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는지 지역별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산은 1876년 개항 이전까지는 동래와 왜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였다. 동래는 양반 중심의 사회였고, 왜관은 통역관과 무역을 하는 일본인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었던 곳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부산 지역 거주가 확대되었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부산항을 통해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부산의 근대교육은 이렇게 양반과 일본인, 선교사들에 의해 동래, 부산진, 초량 지역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었다. 동래지역은 양반 사회 기반의 기영회를 중심으로 한 동명학교 즉 지금의 동래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부산진지역은 호주장로교에 의해 일신여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초량지역은 통역관이었던 선각자인 박기종에 의해 개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왜관지역 중심으로 일본인 자제를 위한 심상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chora9008@naver.com](mailto:chora9008@naver.com)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개화기 부산 지역의 근대학교 형성은 중앙의 법제에 의해 실행되었다기보다 부산 내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지형적 특수성이 당시 학교 형성에 작용하였고, 개항으로 인해 부산항과 경부선 건설로 인한 일본이라는 외국인 유입이 학교 설립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부산의 근대학교 형성에는 각 지역별 계층 구성과 학교별 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부산근대교육, 개화기교육, 심상소학교, 개성학교, 일신학교, 동명학교

## I. 들어가며

1876년 개항을 시작으로 조선은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육에 있어서도 종래의 유교 경전 중심의 전통적 교육을 지양하고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다.<sup>1)</sup> 근대 교육제도가 마련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초등교육, 중등교육, 사범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학교 관련법 규정이 제정된 1895년부터였다.<sup>2)</sup>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학부(學部)가 1895년 관립소학교를 설치하여 조선 최초로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을사조약 후 일본은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여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sup>3)</sup>

1895년 8월에 관공립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1905년 말에 이르기까지, 서울(한성)과 지방에 60여 학교가 설치되어 근대적 초등교육을

1) 김영우, 『한국 개화기의 교육』, 교육과학사, 1997, 47쪽.

2) 윤건차, 이명실·심성보 역, 『다시 읽는 조선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살림터, 2016, 127쪽.

3) 김영우, 위의 책, 1997, 47쪽.

실시하였고, 또한 사립학교도 상당수 설치되어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관공립소학교들은 학교 건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교육을 위해 활용할만한 교구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학생 수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여러 부분에서 학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공립소학교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공립소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소학교들은 보잘 것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내용이나 방식에서 근대식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문 중심의 서당식 교육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sup>4)</sup> 당시 소학교들을 환경적으로는 공간의 크기나 건물의 형태에서, 교육적으로 본다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이전의 서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 후 다음 해 8월부터 1910년 8월까지 4년간의 기간 동안, 학부에서 제정·공포한 보통학교령과 보통학교령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학부는 우선 1906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관공립소학교를 ‘관공립 보통학교’로 학교명을 개칭하였고, 새로운 학교 관련법에 따라 초등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였다.<sup>5)</sup> 사립초등학교는 제도적으로 보통학교령과 보통학교령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각각의 학교마다 다른 제도 아래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sup>6)</sup>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학교의 명칭을 가진 사립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설립주체나 설립목적, 교원, 유지 등에 관해서도 관공립보통학교와 다르게 시행되었다.

정부에서는 학교교육을 위해 교육령을 공포하였지만, 교육령에 따라

4) 김영우, 앞의 책, 68쪽.

5) 김영우, 위의 책, 90쪽.

6) 김영우, 위의 책, 105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이 실시되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부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1895년 ‘일신학교’와 ‘개성학교’ 설립 이후 1905년 ‘동명학교’ 등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근대학교 형성이 더디게 진행되었다.<sup>7)</sup>

현재 부산은 낙동강 넘어 강서구와 기장군을 편입시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개화기 시기만 하더라도 왜관이 있는 초량지역과 온천이 있는 동래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본래 조선시대까지도 초량 인근의 부산진은 왜군을 감시하는 군사지역이었고, 동래는 부산 내의 한 구역이 아니라 동래부로서 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시작된 이후 동래와 부산의 관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다가 1910년 일제가 강점하면서 동래와 부산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부산의 개항이 결정된 후 용두산 주변의 땅 약 10만 평은 일본인을 위한 거주지로 개방되었고, 이후 점차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면서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876년 부산관리청 내 근대식 우편국 개설과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기선 취항, 1878년 1월 일본국립제일은행 부산지점 개설과 더불어 일본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조선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항만 건설, 도로 정비, 수도 가설, 학교 설립, 전차 가설, 병원 건립 등을 통해 다양한 근대 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sup>8)</sup>

이렇게 부산은 1876년 개항 이후 부산포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근대화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산의 근대학교는 도시화에 따라 설립되기보다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고, 크게 일본인 ‘거류지역’, ‘상업지역’, ‘동래유지지역’, ‘선교

7) 부산 지역은 1905년을 기점으로 1910년대 대거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부록> 참고.

8) 부경역사 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歷史』, 선인, 2003, 70~72쪽.

활동지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화기 부산의 근대학교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화기 부산 근대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일신학교 중심의 근대 교육을 비롯하여<sup>9)</sup>, 개성학교 연구<sup>10)</sup>, 일본인사회의 교육<sup>11)</sup>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확장해서 개화기 근대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전민호의 연구가 눈에 띄는데 헐버트와 같은 인물 연구<sup>12)</sup>를 비롯해서 서당교육<sup>13)</sup>, 유치원교육<sup>14)</sup>, 관립소학교<sup>15)</sup>에 대한 학교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영우<sup>16)</sup>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원양성, 실업교육, 외국어 교육, 사학 등으로 나누어 근대 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윤건차<sup>17)</sup>는 개화기 근대학교의 설립과 추진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교육령에 의거해서 전체적인 개화기 교육의 특징을 살펴본 것으로, 관학, 사학, 기독교 학교에 대해 분석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에서 근대학교가 지역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성격

- 
- 9) 박귀순, 『일제강점기 부산 일신여학교의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9(2), 2014. 오미일,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항도부산』 37, 2019.
  - 10) 황운, 『開化期釜山開成學校に関する研究 -『韓国(朝鮮)ニ於ケル學校關係(補助金支出之件)』の分析を中心に』, 『일본어문학』 87, 2019.
  - 11)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교육(1): 일본인 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3, 2005.
  - 12) 전민호, 『헐버트의 활동과 교육사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6(1), 2010. 전민호, 『유길준과 헐버트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39, 2011.
  - 13) 전민호, 『개화기 서당교육의 전개』, 『한국교육학연구』 23(3), 2017.
  - 14) 전민호, 『개화기 유치원교육 연구』, 『교육문제연구』 32(4), 2019.
  - 15) 전민호,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2016.
  - 16) 김영우, 앞의 책, 1997.
  - 17) 윤건차, 앞의 책, 2016.

은 무엇이었는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 Ⅱ. 개화기 부산의 지역 형성

‘부산포 지역’은 ‘부산’이라는 지명이 유래된 곳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으며 당시 더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동래읍과는 달리 한산한 어촌지역이었다. 왜관지역은 일본인 거주지로서 일본인들이 왜관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담장이 쳐져 있었고, 성인 남자만이 살 수 있는 폐쇄적 공간이었으므로,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거래는 왜관 내에서만 한정되었다. 이와 같이 용두산 주변은 일본과 무역 및 외교가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으나 개항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고립된 곳이었다.<sup>18)</sup>

### 1. 부산의 지역적 확장

조선 말기부터 통감부가 설치되는 1906년까지 부산과 동래지역은 동래부 또는 동래군에 속해있었는데, 1906년 9월 동래부로 되었다가, 1910년 일제강점으로 인해 부산부로 변경되었고, 1914년 부제(府制)의 실시와 더불어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분할되었다.<sup>19)</sup> 1914년 인구 구성

18) 부경역사 연구소, 앞의 책, 2003, 69~70쪽.

19) 1914년 3월 1일 부제의 실시로 부산부에 속한 지역은 구일본거류지가 있었던 오늘날의 동광동, 광복동, 신창동, 창선동, 대교동 일대와 중국조계지가 있었던 오늘날의 초량동, 영주동, 영선동, 영도지역, 범일동, 좌천동, 수정동, 대신동, 부민동, 부평동, 용당동의 일부 등이었다. 부제 실시 이후 1936년 부산부는 동래군에 속해있던 서면지역을 흡수하여 부산진출장소를 설치하였고, 오늘날의 남구, 부산진구에 속하는 지역이 이때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다시 1942년에 부산부는 동래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동래, 사하, 수영출장소를 각각 설치하였다. 오늘날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일원이 이때 부산부로 편입되었다. 1936년 이래 행정구역의 개편은 동래군이 부

은 부산부 전체 인구 55,094명 가운데 조선인 26,653명과 일본인 28,254명, 동래부 전체 인구 77,622명 가운데 조선인 75,574명과 일본인 2,048명이었고, 이후 부산부 내의 일본인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sup>20)</sup> 즉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일제강점 직후까지 행정구역이 자주 변화하였고 이전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중심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할만한 지역으로 초량지역을 들 수 있는데, 초량은 조선시대 이래 군사 거점인 부산진(釜山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주거 공간과 초량왜관 공간을 활용한 일본전관거류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일본전관거류지에는 근대문물, 근대문화, 근대건축물이 유입되면서 근대적인 시가지로 변해갔다.<sup>21)</sup>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일본인들은 전관거류지를 벗어나서 초량으로 급격히 이주하게 되었고, 개항지역 역할을 하면서 중국 조계지 등 각국의 거류지도 형성되었다.<sup>22)</sup> 초량왜관이 조성될 때 왜관의 북쪽(현재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지역)과 서쪽(현재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지역)에는 조선인 마을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일본과 교역을 통해 살아가려는 조선인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이 형성되는 마을도 있었다. 왜관 주변에 있던 마을 가운데 조선과 일본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은 왜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초량촌이었는데, 바로 이곳이 오늘날 초량 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sup>23)</sup>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자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일본 관공서와 그들의 자제를 위한 학교 등이 초량에

---

산부에 포함되는 과정이었고, ‘부산부+동래군’의 관할구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인구의 추이를 볼 때 부산은 1940년대 초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큰 도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성장과는 반대로 동래는 일제강점기 동안 계속 축소되었다.(부경역사연구소, 앞의 책, 2003, 69~70쪽).

20)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韓國民族文化』 26, 2009, 299~300쪽 참조.

21) 양홍숙, 『개항 후 초량 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5쪽.

22) 양홍숙, 위의 논문, 18쪽.

23) 양홍숙, 위의 논문, 6쪽.

세워지게 되었다.<sup>24)</sup>

## 2. 철도와 항만 건설

최초의 철도선인 경인선은 1899년 제물포-노량진 구간으로 개통되었고 이듬해인 1900년 남대문역까지 연장되었다. 1905년 1월에는 경부선이 완공되었고, 1906년 4월에는 경의선이 완공되어 운행되었다. 1914년에는 용산-원산간의 경원선이 개통되었고, 1911년 11월 1일에는 신의주와 만주의 안동(安東)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가 완공되어 조선과 만주를 직통하는 철도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1904년 9월 11일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을 연결하는 ‘관부연락선’이 개통된 이후 6년 만에 일본과 대륙을 잇는 교통망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시모노세키-부산-서울-신의주-만주를 철도로 이어서 일본, 조선, 중국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제의 만주 진출 혹은 침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본래 의미일 것이다.<sup>25)</sup>

1910년 초반부터 일본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들이 단순히 이동만이 아닌 관광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여행 기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근대화되는 것은 1912년 3월 12일 일본여행 협회가 설립되면서부터인데, 1912년 12월 1일 경성 안내소와 부산 안내소가 남대문정거장 여객 대합소와 부산정거장 여객 대합소 내에 각각 설치되었다. 철도의 부설과 여행안내소의 설치는 부산이 지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sup>26)</sup>

이와 같이 부산의 지리적 특징이 본격적으로 부각하게 된 것은 1904

24) 양홍숙, 앞의 논문, 26쪽.

25)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 79쪽.

26) 조정민,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부산 관광의 표상과 로컬리티 - 지배와 향유의 바다.」, 『日本文化研究』 67, 2018, 39~40쪽.

년에 부산이 경부 철도의 기점이 되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초량 기차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선창 부두 외에는 크게 도시를 이루는 곳이 없었던 당시 부산의 중심지는 초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연히 사람들도 대거 모여들게 되었고, 모인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초량과 부산 사이 철도를 4킬로미터 가량 연장하여 새로이 부산역 설치를 요구하였다. 경부 철도의 기점을 초량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부산과 초량 사이에 영선산(瀛仙山)이 바다로 향하여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매립으로 인하여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지만, 당시에는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으로 이동이 불편한 곳이었다. 따라서 부산과 초량은 구분될 수밖에 없었고, 이동 경로는 산길(지금의 수정동에서 영주동에 이르는 고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경부철도회사는 기존의 부산포 지역을 피하여 초량을 기점으로 하였던 것이며, 이에 부산포 부근의 거류민들은 기대와 달리 번영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sup>27)</sup>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에서 조인된 [강화도조약 제4관의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일본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종전의 세견선(歲遣船) 등의 일을 개혁하고 새로 만든 조관을 병준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한다.’<sup>28)</sup>는 내용을 담아 양국의 정치 및 무역을 위한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후 1905년 9월 11일과 같은 해 11월 1일 11시 30분,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와 쓰시마마루(對馬丸)가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이후, 3,000톤급 선박인 고마마루(高麗丸)와 시라기마루(新羅丸)가 1913년 1월 31일과 1913년 4월 5일에 각각 취항하였다. 이후 1922년 5월 8일 게이후쿠마루(景福丸), 같은 해 11월 12일 도쿠주마루(德壽丸), 1923년 3월 쇼케이마

27) 박원표, 『釜山の古今』, 현대출판사, 1965, 213쪽.

28) 최해근, 『釜山史探究』, 부산을 가꾸는 모임, 2000, 51쪽.

루(昌慶丸)가 차례로 취항하였다. 이들 선박은 3,500톤급으로 운항 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들 세 선박이 하루 두 번 왕복운행하게 되었다.<sup>29)</sup> 선박의 대형화와 승객의 증가, 운항 시간의 단축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과 조선 및 대륙을 연결하는 바다 운항로는 점차 확대 및 강화되어 갔다.<sup>30)</sup>

### 3. 선교사 입국과 교회 설립

부산은 일제 식민지 시기를 통해서 근대 도시로 발달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거주 선교사였던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구미의 선교사들이 입항했던 첫 항구였고, 1876년 개항 이후 의주와 더불어 기독교와의 접촉이 빨랐던 도시였다.

특히 일제의 지배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산은 왜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잦은 출입이 가능했고, 또한 일제에 의해 근대적 도시를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근대적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부산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한 편이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알렌은 조선에 들어올 당시 부산을 선교지 대상으로 고려하기도 했지만,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서울을 선교지 대상으로 삼게 되었듯이,<sup>31)</sup> 부산의 당시 분위기가 기독교 수용에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항기 부산에 유입되었던 각종 종교단체들 가운데 기독교회의 개설 상황을 살펴보면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를 비롯하여, 일본기독교부산전도교회(1904), 부산성공회(1904), 천주교공회(1914), 일본멘체스트부

29) 현재 부관훼리에서 16,000톤급을 1일 한 번 왕복 운항(여객 500여 명, 화물 30대, 컨테이너 136개)

30) 조정민, 앞의 논문, 38~45쪽.

31) 임지원, 「한말~일제시기 부산지역 기독교인들의 계층 구성과 지역 내 활동 -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44, 2009, 224쪽.

산교회(1913) 등이 있었다.<sup>32)</sup>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초량교회와 호주 장로교에서 세운 부산진교회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교회인데 반해, 위의 다른 교회들 일본기독교 계통의 교파들로써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sup>33)</sup>

1876년 개항으로 알렌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구미의 선교사들이 부산을 통해 점차적으로 입국하였지만, 부산이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것은 1891년경부터였다. 189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는 영선산 고갯길 터의 ‘세 필지의 땅’을 ‘외국인 거주지’란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sup>34)</sup> 한편, 호주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에서 살았으나 이후 1893년 맥케이(Rev. J. Mackay, 1857~1919)가 초량지역에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멘시스(Belle Menzies, 1856~1935)와 페리(Jean Perry, ?~1935) 등의 호주 여선교사들이 1892년경 부산진지역에 한옥 건물과 땅을 매입하면서<sup>35)</sup>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이후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191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철수하기까지 초량지역은 북장로교 선교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부산진지역은 호주 선교부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sup>36)</sup> 초량과 부산진 이 두 지역은 대표적인 조선인 거주지로서,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는 부산 지역 기독교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제강점기 부산은 일본인들이 거류하는 곳을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근대적 도시로 변모해가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

32) 최인택, 『개항기 오쿠무라 엔신의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50쪽.

33) 임지원, 앞의 논문, 2009, 225쪽.

34) 초량교회, 『초량교회 100년사』, 1994, 56쪽.

35)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1880~1900)』,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174쪽.

36) 임지원, 위의 논문, 2009, 226쪽.

역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구별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초량지역과 부산진 지역은 조선인 밀집 지역이자 부산의 빈민지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초량지역과 열악한 생활 수준의 조선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부산진지역의 기독교 수용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각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노력으로 1894년 4월 22일 심상현(沈相炫), 이도념(李道恬), ?귀주(?貴珠)가 부산 지역의 첫 수세자가 된 것<sup>37)</sup>을 비롯하여, 초량지역은 부유한 상인계층과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초량교회가, 부산진지역은 가난한 노동계층과 조선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부산진교회가 교세를 형성하였다.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의 교인 거주지는 교회별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두 교회가 지리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일정, 좌천정 일대의 사람들은 부산진교회만, 초량정, 영주정 일대의 사람들은 초량교회만 출석하였다.<sup>38)</sup> 1909년 일본에 의해 착평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용두산 일대의 일본전관거류지로부터 부산포의 중심지인 부산진으로 가자면 그 중문 즉 오늘날 중앙동에서 영주동에 걸친 영선산이 우뚝 솟아 있어 부산포는 자연히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였다.<sup>39)</sup> 착평 공사 후 두 지역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교인들의 거주지는 구분되었다. 또한, 부산진교회 교

37) 심상현은 멘지스의 어학 선생이었고, 이도념은 페리의 조수로서 고아원아들을 돌보았던 나이가 많은 여자였다. 귀주는 성이 분명치 않고 호주 선교사들이 1891년 부산에 온 이후 한국인 거주 지역에 살 때 찾아왔던 첫 여자로 알려져 있다. 이상규, 앞의 글, 1994, 169쪽.

38) 윤경로, 「서울지역 개신교 교회창립 경위와 교인의 신앙양태 및 사회·경제적 성향」, 『서울학연구』 12, 1999, 182쪽.

39) 임지원, 앞의 논문, 234쪽. 130척(1척: 30.3cm) 즉 해발 40m 정도 되는 산으로 지금은 착평과 매립으로 인해 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도로, 지하철, 고층 건물, 부두, 항구가 넓게 이루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산이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어서 양 지역의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인들 가운데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본가들이 적은 데 반해, 초량교회 교인 중에는 상당수의 자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것도 지역적 특성이 작용한 것이었다.<sup>40)</sup>

이들 두 교회가 설립되었던 곳은 일본인 거류지의 도시가 아닌 주변의 비도시화 지역이었고, 비근대적이면서도 전통적 지역인 동래와도 분리된 소외 지역이었다. 이곳은 도시의 발전이나 역사성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주체적일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정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적 위치였을 것이다. 동래 지역과 같이 역사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을 것이다. 또한, 부산의 도시발전에 있어서 일본인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배제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속에서, 이 지역의 조선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쉽게 의지하여 그러한 어려운 삶을 해소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이 지역의 불리한 여러 조건들은 식민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종교적 영향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 교세가 형성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sup>41)</sup>

이상과 같이 지역 확대, 교통중심지, 기독교 전파, 영선산으로 인한 생활권 구분, 일본전관거류지 확대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화기 시기의 부산은 크게 왜관지역, 초량지역, 부산진지역, 동래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생기고 일본의 무력이 더해져 초량 왜관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식 도시가 생겨났고, 동래부도 편입이 됨으로써 부산은 확장되었다. 일본인들의 관청은 초량에서 지금의 남포동 광복동으로 이어졌고, 더불어 일본인 학교도 그곳을 중심으로 제11심상소학교까지 설립되었다. 이에 우리도 근대교육의

40) 임지원, 앞의 논문, 235쪽.

41) 임지원, 위의 논문, 235쪽.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초량에 ‘개성학교’, 좌천에 ‘일신학교’, 동래에 ‘동명학교’를 설립하였다. 모두 1895년부터 1905년에 설립된 부산의 초기 학교들로 지형과 계층의 특성에 따라 설립되었고 각 설립주체도 학교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 Ⅲ. 개화기 부산 지역의 학교

보수적인 학부 행정 아래에서 근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교육재정의 부족과 관련해 아주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였다. 처음에 4개 학교, 학생 수 187명으로 출발한 소학교의 경우,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뉘었고 수업연한은 심상과 3년, 고등과 2년 또는 3년이었으며, 학령은 7세에서 15세까지였다. ‘소학교령’에 의하면 심상과의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외에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재봉 등이었고,<sup>42)</sup> 고등과에는 이 밖에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소학교는 1군 1교, 전국 300개교 정도를 설립하는 것이 당초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1897년 9월 현재 8개 학교에 학생 수는 400~500명,<sup>43)</sup> 다음 해인 1898년 7월 현재 9개 학교에 학생 수 838명에 그쳤고,<sup>44)</sup> 이후 부군설립의 공립소학교를 더한다고 해도 소학교의 설립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900년 서울에는 관립소학교 10개교, 외국어학교 6개교, 사립소학교 11개교, 의학교 1개교, 사범대학교 1개교, 배재학당 1개였고, 각 지방에는 소학교 62개교, 학교 총수는 92개에 불과하였다.<sup>45)</sup> 1904년 당시에는 서울에 학부 직할의 고등소학교 1

42) 김영우, 앞의 책, 1997, 50-54쪽 참조.

43) 『독립신문』 1897. 9. 21., ‘안동 관립 소학교 교원 안영상씨의 편지’.

44) 『독립신문』 1898. 7. 6., ‘동몽교육’.

45) 『황성신보』 1900. 1. 26., ‘각 학교 및 경비’.

개교, 관립의 심상소학교가 9개교였고, 또 전국에 공립소학교 25개교 및 이와 비슷한 정도의 사립소학교가 설립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관립 학교 학생 수는 각 학교에 따라 50명에서 120~130명 사이였으며, 공립 및 사립학교는 관립보다 적은 20~30명 정도였다. 학교 설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기존의 전통 가옥을 보수하여 사용했고 고등소학교라 할 지라도 교실은 2~3개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sup>46)</sup>

개화기 부산의 근대학교는 지역의 특수성과 더불어 설립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령에 부합하는 곳이 없었다. 심상소학교는 부산 내 일본인이, 개성학교는 선각자 박기중(朴琪淙, 1839-1907)이, 일신 학교는 호주장로교 선교사가, 동명학교는 동래기영회 회원들이 설립하였다.

## 1. 심상소학교 (일본인학교)

부산 지역의 일본인 교육은 개항 직후인 1877년에 소학교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개항과 함께 설립된 부산 일본인 회의소는 아동교육을 위해서 1877년 학교 설립을 결정하였고, 방 하나로 이루어진 회의소에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때 학생 수는 13명에 불과하였는데, 독서, 산술, 습자 등을 가르쳤다.<sup>47)</sup> 이것이 부산에서의 일본인 학교 교육의 시작이었다.

당시 일본은 부국강병과 효과적인 강점을 위해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1871년 7월 문부성을 설치하고, 1872년 8월 학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교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소학교를 심상소학(尋常小學), 여아소학(女兒小學), 촌락소학(村落小學), 빈인소학(貧人小學), 소학사숙

46) 윤건차, 앞의 책, 2016, 174~175쪽.

47) 부산부 부산교육회, 『부산교육 50년사』, 1928, 2쪽.

(小學私塾), 유아소학(幼兒小學)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 심상소학이 학교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상등과 하등 2등급으로 나누고 수업연한을 각기 4년 합계 8년으로 하여 남녀 누구나 이 교육을 받아야 했다.<sup>48)</sup>

부산에서의 일본인 교육의 시작도 이런 교육제도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부산의 일본인학교는 아직 체제가 잡힌 상태는 아니었다. 이 학교는 1878년 학생 숫자가 30명에 이르면서 기존의 교실이 협소하게 되어 내대청(內大廳)의 한 건물을 빌려 운영하였다. 이후 1879년에는 아동이 50명으로 증가하여 학교를 동본원사(東本願寺, 히가시혼간지: 현재의 대각사 자리) 별원(別院)으로 옮겨서 확대운영하였다.<sup>49)</sup>

이러한 부산 내 일본인 학교 교육이 빨리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은 일본인들의 부산 개항장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내 일본인은 1879년 거주인 923명 학생 수 50명, 1881년 거주인 1,488명 학생 수는 120명이었다.<sup>50)</sup>

1876년 10월 25일 새로운 영사로 외무성 7등출사 관리관인 곤도 마사키(近藤真鋤)가 취임해 있었다.<sup>51)</sup> 그는 보통교육을 완비하기 위해 교사개축에 노력하고 교장과 교감을 초빙하고, 직원직무장정을 정하였으며, 별도로 교무위원을 선임하고, 학교 이름을 수제(修齋)학교로 정하였다. 1888년 수제학교는 거류민회의 결정에 따라 교사를 신축하여 입주하였고, 이것을 기회로 수제학교는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부산공립학교로 개칭하였다.<sup>52)</sup>

1889년 부산공립학교는 일본 내의 소학교령(1886)에 기초하여 교칙

48) 부산부 부산교육회, 앞의 책, 1928, 4~9쪽.

49) 조선총독부 내부국 학무국, 『조선교육요람』, 1916, 87쪽.

50) 부산부 부산교육회, 앞의 책, 1928, 17~19쪽.

51) 최혜주, 『정담: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9, 40쪽.

52) 조선총독부 내부 학무국, 『조선교육요람』, 1915, 87쪽.

을 개정하여서 심상과와 고등과의 수업연한을 각 4년으로 하고 경비는 일반 거류민의 부담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정비가 인정을 받아 1891년 5월 교육칙어등본을 받았고, 1892년 어진영(御眞影)을 받았다.<sup>53)</sup> 당시 조선 내에 일본인 교육기관으로는 부산 이외에 1882년 원산, 1885년 인천, 1889년 경성 등에 각 1개의 학교가 있었다.<sup>54)</sup> 개항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일본의 조선 내 교육 행태에 대해 아직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조선 내 근대교육은 소학교령에 의한 초등교육은 일본의 소학교 교육을 그대로 이행하는데 그쳤고, 조선인을 위한 고등교육을 도입하거나 실시하려는 움직임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이르러야 가능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부산 내 거류하는 일본인은 1,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의 숫자가 45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때 부산공립학교의 명칭이 부산공립소학교로 개명되었으며 새롭게 영어와 조선어가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나아가 예습과를 설치하여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서 능숙한 학생의 경우 본과생으로 편입하는 제도를 두었다. 1900년 당시 학생 수는 623명으로, 고등 5학급, 심상 7학급, 합계 12학급, 직원 15명 등이었다.<sup>55)</sup> 이 시기는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던 상황이었기에 부산의 일본인 교육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다만 소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이 이전보다는 많아졌다는 데 만족할 뿐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거류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일본 교육을 모방하거나 일본의 교육제도를 참고하여, 그들의 자제를 교육하거나 일부 조선인들을 받아들여 교육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sup>56)</sup> 본격적으로 일본

53) 부산부 부산교육회, 앞의 책, 1928, 11~12쪽.

54)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교육 (I) -일본인 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3, 2005, 207~209쪽.

55) 이송희, 위의 논문, 209~210쪽 참조.

56) 이송희, 위의 논문, 212쪽.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교육정책을 펼쳐서 교육 혜택을 주거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기는 아니었다.

1906년 4월 부산 내 일본인 교육은 많은 학생이 생겨남에 따라 학교 개설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2개의 중등학교와 3개의 소학교로 당시로서는 많은 다섯 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부산공립소학교가 부산공립심상소학교, 초량심상소학교, 부산공립고등소학교, 부산공립고등여학교, 부산공립상업학교가 이에 해당하는데, 초량심상소학교의 경우 초량의 경부철도회사가 사원 자녀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30여 평의 교사와 직원 숙소를 건축하였던 것이고, 매년 500원을 거류지역소에 제공하는 계약 조건으로 학교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 학교들은 1906년 11월 거류민단법 실시로 학교의 명칭이 부산거류민단립 학교로 바뀌었다가, 1908년 1월에는 통감부 지정학교가 되었으며, 또한 재외지정학교가 되었다. 조선 내의 일본인 교육을 더 이상 민(民)에게만 맡겨둘 수 없었기 때문에 통감부가 직접 관할하게 되었던 것이고, 9월에는 문부성 고시 제233호에 따라 재학 아동과 졸업자는 타 학교로의 전학과 입학에 관해 일본의 시정촌립(市町村立) 소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되었다.<sup>57)</sup> 이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본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학제와 유사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학력을 인정 해주면서 일본인 학교나 일본의 학교에도 조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허용해 주었던 것이다.

이후 심상소학교는 확대되어 <표 1>의 1926년 부산교육통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877년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를 시작으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교, 실업학교가 설치되어 일본인 자제를 교육하였다.

57) 이송희, 앞의 논문, 214~215쪽.

〈표 1〉 1926년 5월 부산의 교육 현황<sup>58)</sup>

학교명	위치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직원수
부산공립유치원	琴平町	1915.05.10	3	110	3
사립부산유치원	신창동	1897.03.03	3	109	5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	대청동	1877.05.01	16	813	18
부산제2공립심상소학교	보수동	1912.04.01	15	815	16
부산제3공립심상소학교	수정동	1906.04.01	15	858	17
부산제4공립심상고등소학교	영선동	1910.04.01	14	551	16
부산제5공립심상고등소학교	보수동	1906.04.01	11	486	14
부산제6공립심상소학교	토성동	1919.04.01	18	967	21
부산제7공립심상소학교	대청동	1920.09.01	12	648	14
부산제8공립심상소학교	범일동	1923.05.27	4	191	5
부산공립중학교	초량동	1913.04.01	12	554	28
부산제1공립상업학교	대신동	1906.04.01	10	466	22
부산공립고등여학교	토성동	1906.04.01	15	697	25
부산상업실천학교	광복동	1919.05.15	5	157	15
삼도여자고등실습학교	대청동	1913.10	7	254	13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	보수동	1924.05.03	3	35	7

## 2. 개성학교 (봉래초등학교, 부산상고)

1876년 개항 이후 영주동에 세워진 개성학교는 부산에 나타난 최초의 근대학교였다. 당시 부산의 첨사(僉使) 및 경찰관(警察官)을 역임<sup>59)</sup>하고 있었던 박기종은 일본을 두 차례나 다녀온 선각자로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내옥, 배문화, 변한경, 이명서 등과 협의하여 사립부산개성학교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각기 300원씩 모아서 교사를 신축하

58) 이승희, 앞의 논문, 234쪽의 표. 자세한 연혁은 <부록> 참조.

59) 박기종의 첨사(僉使)와 경찰관(警察官)에 관한 기록은 부산 좌천동 정공단(鄭公壇) 내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에 새겨져 있다.

기로 하고 교무 및 교수에 대한 제반 업무를 아라나미 헤이치로(荒浪平治郎, 1858~1921)에게 맡겼다. 이리하여 영주동에 부지 약 1,000평, 대소 합하여 6동의 건물을 완성하였지만 1896년 1월,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 3,000여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5명은 다시 그 비용을 공동으로 추가 출자하였다. 1896년 2월 14일자로 개성학교 설립의 건을 대한제국 정부 학부에 신청하여 동년 3월 1일 수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산에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겸한 신식 교육기관인 개성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

1907년 정부로부터 관립으로 이관을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사립학교로 전환하여 사립부산개성일어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보조가 중단되어 경영난으로 학교를 학부에 헌납하였다. 정부는 1909년 이 학교를 공립부산보통학교와 공립부산실업학교로 나누어서 개교하게 하였다.

개성학교의 교명은 산업자원의 개발을 통한 산업의 근대화와 인재양성을 통한 지식의 근대화로 집약된 교명이다.<sup>60)</sup> 당시 학교의 교원은 반 이상이 일본인이었다.

1896년 1월 9일 발행된 『조선시보』에 담긴 ‘부산개성학교총칙’에 따르면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1)</sup>

· 수업연한: 초등과 6년, 중등과 4년, 고등과 2년<sup>62)</sup>

60) 일제의 도쿄제국대학 전신은 막부에 의해 설립된 번서조소(蕃書調所)와 개성소(開成所)이다. 1856년에 설립한 양학(洋學) 교육기관이 번서조소로 출발하여 1863년 개성소가 되었다. 이후 1874년 도쿄개성학교와 도쿄의학교로 분리되었고, 1877년 일본 최초의 근대 대학인 도쿄대학이 창설되었다.(天野郁夫, 『帝國大學』, 中公新書, 2017, 16쪽) 부산개성학교 설립자 박기종이 당시 외교관으로서 활동했을 때, 일본의 대표 교육기관이었던 개성소를 보고 이를 본받은 교육기관을 부산에 설립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61) 황운, 앞의 책, 2019, 242쪽 참고.

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16>)

- 교과목
  - 초등과: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역사, 지리, 박물, 도화, 체조, 일본어학, 화어(華語: 중국어), 영어
  - 중등과: 수신, 독서, 작문, 회화, 문법, 번역,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률, 박물, 산술, 체조
  - 고등과: 경학(經學), 역사, 문학, 정치학, 경제학, 철학
- 직원: 교장, 교사, 조교사, 간사, 사무 회계
- 입학연령: 8-26세(30세 가까운 자도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16-17세, 출신지는 부산 출신이 대부분이고 진주, 하동, 대구, 전라도 출신자들도 입학)

수학여행은 주로 일본 규슈지방을 견학하였고, 제5회 일본산업박람회 오사카에서 개최되었을 때는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지방까지 여행하여 일본문물 일반을 견학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sup>63)</sup> 이는 박기종이 일본어 통역관으로 일본의 정세에 밝고 일본의 문물을 접하는 것이 교육으로서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견학을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졸업생의 다수는 세관, 철도, 통신사무원, 교원, 상점 회사 등에 취직하였고, 개항장이나 근대 시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외국 유학도 적극 권장하였는데, 일반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은 귀국 후 철도회사 직원 및 교원 등으로 근무하였다.<sup>64)</sup>

박기종은 1905년 개성학교의 지교 및 보조교로 구관지교(舊館支校), 부산진지교(釜山鎭支校), 동래부개양학교(東萊府開陽學校), 마산개진

68)과 부산상업고등학교 80년사편찬위원회, 『釜商八十年史』, 부산상업고등학교, 1975. 33쪽의 1903년 학칙에는 ‘연구과 1년’도 수업연한으로 되어 있으나, 설립초기에는 연구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03년의 기록에서 실제 입학생은 없었다.

63) 부산봉래국민학교 동창회, 『蓬萊百年史』, 부산봉래초등학교, 1995, 98~99쪽.

64) 양홍숙, 앞의 논문, 2012, 30~31쪽.

학교(馬山開進學校), 밀양개양학교(密陽開陽學校), 기장일어학교(機張日語學校)를 설립하여 조선 내 교육활동을 확대해나갔다.

### 3. 일신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일신학교를 설립한 호주장로교파의 부산진교회는 비슷한 무렵에 초량교회와 더불어 부산의 기독교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설립주체와 교인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초량교회의 설립자인 사보담(謝普淡)은 리차드 헨리 사이드보텀(Richard Henry Sidebotham, 1874~1908)의 한국식 이름으로, 개항기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사이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으로 1899년 내한하여, 1907년까지 대구와 부산지부에서 활동하였다. 내한하여 첫 1년은 대구지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부산지부로 옮겨 7년 동안 열정적인 선교활동을 벌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선교사역은 부산지방 초기 기독교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sup>65)</sup>

초량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교인의 수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

65) 부산근대역사관, 『사보담의 100년의 약속』, 근대역사관, 2009, 14쪽.

권역 내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가 부산 지역 교회, 특히 영선정교회(현 초량교회), 절영도교회(현 제일영도교회), 자갈치교회(현 향서교회) 등의 초기 교회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1903년에 그가 집필한 “사무엘서의 교훈”에 대한 원고가 『더 크리스찬 뉴스』에 실리고 1907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끝내고, “마가서의 한글 편집에 대한 문법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음서의 번역작업과 저술활동은 한국인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의 한국어 능력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한국어 습득능력이 탁월하여 신입교사에 대한 언어교육이 그의 업무로 주어졌으며, 한국인을 위한 성서번역 작업에도 동참하게 되어 1907년에는 성서번역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1907년 8월 안식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미국 미시간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는 돌아간 직후부터 기술원 폭발사고로 사망하기까지 선교지 한국을 위한 모금과 조력자를 구하기 위한 순회설교를 계속하였다(부산근대역사관, 『사보담의 100년의 약속』, 근대역사관, 2009, 78쪽).

배 가량 높은 65%로 나타났다. 당시 초량교회가 위치하였던 초량지역 일대는 일본인 거주지와도 가깝고 개항 이후 왜관이 설치되어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소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다.<sup>66)</sup> 교회 내 자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유력한 자본가로서 당시 상회를 설립하고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였던 유현태, 윤상은, 윤현진, 전석준이 초량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sup>67)</sup>

반면에 부산진교회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 설립주체는 호주장로교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초량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교인의 구성에서는 부산진지역이 노동자가 주로 거주하였고, 초량과 부산진 사이에 영선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인들도 부산진지역 안으로 한정되었다. 부산진교회는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점차 학생신도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향후 더 큰 교세를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일신여학교가 설립되었다.

개항 이후 신학문을 공부한 젊은 학생층의 교회 출석 비중은 상당히 높았으며 이 같은 현상은 초창기 한국 교회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였다. 특히 부산진교회는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교회 출석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8)</sup> 당시 부산 지역에서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던 일신여학교는 1893년에 호주여선교사들이 설치한 고아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와 같은 해 발표된 「소학교규칙대강」의 영향으로 3개년의 소학교 과정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로써 여학교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곳을 거점으로 신교를 통한 문화선교 방식이 많이 이루어졌다.<sup>69)</sup>

66) 임지원, 앞의 논문, 2009, 238~239쪽.

67) 초량교회, 『당회록』, 1920년 1월 30일자.

68) 1892년 멘지스와 페리 등 여선교사들은 3명의 한국 고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을 돌보며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1895년 10월 5일 좌천동의 한 초가에서 소녀들을 모아 주간학교를 시작했다. 이 학교가 점차 발전하여 ‘날마다 새롭게’라는 뜻의 ‘일신(日新)’이라 지었다.

그러나 <표 2>의 당시 부산진교회 당회록 처리(治理)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교육내용은 기독교 교리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산진교회 당회록 처리(治理)

1. 술에 취하거나 술집에 다니지 않음	6. 이혼한 사람과 결혼함
2.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음	7. 혼인 전에 몸을 조심치 아니함
3.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음	8. 빚을 갚지 않음
4.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음	9. 아내를 때림
5.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함	10. 첩을 두

위의 내용은 모두가 교인으로서 금해야 할 것들이다. 앞의 다섯 가지는 교회 활동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금지행위이자 독려의 내용이다. 술에 취하거나 기생집에 다녀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교를 행하였고, 주일에 상가집에 갔다는 이유로 출교를 행하였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다시 유교적 풍습의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활동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출교의 이유에 해당한다.

뒤의 다섯 가지는 당시 사회적 풍습과 일치한다. 가정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치리한다는 것이고, 이혼을 치리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금하는 행동이고, 아내를 때리거나 혼인 전에 몸을 조심히 하지 않는 일, 첩을 두는 일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덕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당시 부산진교회에서는 치리를 통하여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의도하였다. 치리의 과정은 무작정 처벌이 행해지지 않았고, 소문만을 가지고 치리하지 않았다. 모든 치리에 앞서 그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69) 임지원, 앞의 논문, 2009, 244쪽.

앞의 다섯 가지 치리에 대한 내용은 교회 내적인 부분이고, 뒤의 다섯 가지 내용은 교회 외적인 부분이다. 다시 말해 치리의 범위는 교회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에서부터, 일상의 보편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치리를 통하여 교인으로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호주장로교선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 외에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일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사립일신여학교의 태동은 1892년 멘지스와 페리가 부산부 좌천동 소재<sup>70)</sup>의 3칸 초가인 그들의 집에서 3명의 여자 고아들을 양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895년 10월 15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소재 초가에서 수업연한 3개년의 소학교를 설치하여 멘지스가 교장을 맡아 관리하였다. 1905년 4월 15일에 부산시 동구 좌천동 768번지 지금의 금성중고등학교 터 일부에 교사를 신축하고, 1909년 8월 9일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3개년 과정의 고등학교를 신설하였다.<sup>71)</sup>

멘지스는 사립일신여학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첫 한국어 교사 심상현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반도 만들어 교육하였는데, 1900년 왕길지[王吉志: 겔손 엔겔(Gelson Engel, 1868~1954)의 한국식 이름] 목사 부부의 내한으로 남학생의 교육은 왕길지 목사가 맡았다. 이 학교가 지금의 부산장로회신학교의 전신이다.

1895년 2월에 내려진 고종 황제의 “교육입국조서”에 의해 사립일신여학교로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마련되었고, 1905년 4월 15일

70) 몇몇 문헌에서 일신학교 소재지를 동래로 표기하고 있는데(윤건차, 앞의 글, 203쪽. 이 기록의 一進학교도 日新학교의 오기로 보인다.), 1925년 동래구 복천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좌천동에 자리하였으므로 학교설립부터 1925년 전까지의 소재지는 부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71) 노영숙, 『개화기 선교사들의 기독교 교육이 근대 교육 문화에 기여한 교육적 의의』, 『기독교교육논총』 34, 2013, 371쪽.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붉은 벽돌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학교로서의 면모를 반듯하게 갖추었으며, 1909년에는 대한제국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3개년 과정의 고등과를 병치하였다. 멘지스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인들과 어머니들이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여, 전도와 개화, 남녀평등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sup>72)</sup>

#### 4. 동명학교 (동래고등학교)

동명학교는 동래기영회(東萊耆英會)에서 설립하였다. 동래기영회는 퇴임한 이서(吏胥: 서리, 이속, 아전 등)인 이임(吏任)과 무임(武任)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1846년에 조직한 ‘기영계’에서 시작되어, 1876년 ‘기영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1883년과 1897년 동래부사가 모임에 가입하여 동래 지역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발전해 갔다.<sup>73)</sup>

동래기영회의 일부 회원 가운데 조선도 일찍 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화를 위해 그리고 적을 알기 위해서는 일어(日語)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합의에 이르렀다. 기영회 회원 중 한 사람인 신명록(辛明錄, 1886년 입회)<sup>74)</sup>은 기영회 동지 몇 사람과 더불어 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1898년에 한문과 일본말을 가르치는 학원을 동래에 세웠고, 이것을 ‘공립동래부학교’라고 불렀으며, 속칭 ‘동래일어학교’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동래부학교가 이루어졌으나, 이 학교는 기본 재산 없이 신명록의 사재로 설립된 것이므로, 1903년에는 재정난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결과 개성학교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했던 일본인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波平治郎)가 이 학교 학생들을 인계받아 동래 서계

72) 동래학원, 『동래학원100년사(1895~1995)』, 동래학원, 1995, 28~31쪽 참조.

73) 변광석, 「동래기영회의 활동과 변화를 통해본 지역성」, 『역사와 경계』 84, 2012, 참고.

74) 변광석, 위의 논문, 82쪽.

소(書契所: 조선시대 일본과의 공식외교문서 담당기관)를 개조하여 ‘개양학교(開揚學校)’를 세웠고, 일본 외무성의 원조를 받으면서 동래 청년들에게 친일교육을 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래기영회에서 1905년 ‘삼락학교(三樂學校)’를 세웠고, 이것이 현재 ‘동래고등학교’의 뿌리가 되었다.<sup>75)</sup> 1906년 3월 당시 동래기영회 회장인 송상중 등이 서당 삼락재(三樂齋)를 열었다가 1907년 11월 5일 사립 개양학교(開陽學校)를 인수하여 이름을 ‘면립 동래 동명학교(東明學校)’라 개칭하고 학교를 주관하였다. 초대 교장으로 박필채(朴苾彩: 1897년 입회)가 역임하였다.<sup>76)</sup> 동래고등학교는 중간에 일본인 아라나미 헤이지로에 의해 친일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이에 맞서 지속해서 조선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래기영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었다.

동래기영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육영 사업인데,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인 삼락학교, 동명학교, 사립동래고등학교가 세워져 운영되었고, 동래공업고등학교의 전신인 동래원예전수학교, 내성초등학교의 전신인 동래보통학교, 유락초등학교의 전신인 동래제2보통학교 등의 설립 운영에도 기영회의 뒷받침이 있었다.

동래부 학교의 교원은 한문을 가르치는 조선인 2명과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인 1명 모두 3명이었는데, 일본어로서 수업하던 과정은 초등전기 1,2학년이었으며, 이를 일어부(日語部)라 한 데서 동래일어학교라 불리기도 하였다.<sup>77)</sup> 사립동래동명학교의 학칙은 다음과 같다.<sup>78)</sup>

75)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편, 『東萊鄉校誌』,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2010, 467쪽.

76) 변광석, 앞의 논문, 82쪽.

77)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東萊高等學校八十年史』, 동래고등학교, 1978, 30~32쪽 참조.

78)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釜山近代學校關係資料集-私立東萊東明學校篇-』, 세종문화사, 1993, 598~611쪽의 학칙 참고.

- 총칙: 남자 학생 200명의 4년제 고등보통교육을 실시
- 교과목: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수학, 이과(식물, 동물, 생리, 위생, 화학, 광물) 실업(상업, 농업), 법제경제, 습자(해서, 행서), 도화, 창가, 체조
- 수업시간: 오전 8시부터 시작
- 학내 규칙: 학교 내 교장이나 향당(鄉黨)의 부로존장(父老尊長)과 타 학교 교직원을 대할 때,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필히 경례해야 함
- 학년: 4월 1일~다음해 3월 31일
- 학기: 4월 1일~8월 31일, 9월 1일~12월 31일, 1월 1일~3월 31일의 3학기
- 휴일: 개교기념일 11월 5일, 일요일, 하계휴업(여름방학) 7월 21일~8월 31, 동계휴업(겨울방학) 12월 29일~다음해 1월 5일, 학년말 휴업(봄방학) 3월 26일~31일
- 직원: 교장 1인, 학감 1인, 교원 8인 이하, 서기 1인으로 구성
  - 학교장: 학교를 대표하고 관리
  - 학감: 학교장을 보좌하며 학무를 감독
  - 교원: 생도의 교육에 종사
  - 서기: 학교장의 명령을 얻어서 서무회계에 종사
- 입학자격: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입학원서에는 지원학년, 본적, 현주소, 신분(귀족, 양반, 유향, 서민), 호주관계, 가업(호주의 직업), 생년월일을 기입, 이력서를 따로 첨부해서 언제 어떤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는지와 상벌의 내용에 대해서도 작성.

이 규칙에는 학생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게 해놓고 있다. 특히 보증인이 다수 필요했던 것으로 보아, 재력이나 신분이 확실한 가문의 학생들이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 IV. 맺음말

이제까지 개화기 부산의 근대학교 형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지역별 특성을 고찰해보았다.

개화기 이전 부산은 크게 기존의 동래와 부산진으로 나누어졌으나, 개항 이후에는 일본인 유입과 선교사들의 활동, 영선산으로 인한 생활권 구분으로 당시 부산은 네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항으로 인한 일본인의 대거 유입으로 초량 왜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일본인 거류지역’, 일본과 상거래가 활발하고 부유한 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초량지역’, 지역적으로는 초량과 근접했지만 영선산으로 인해 구분되어지고 노동자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던 ‘부산진지역’, 무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기존의 ‘동래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즉 당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부산은 외부인의 유입, 지형으로 인한 계층 구분, 동래기영회와 같은 기존 기득권 계층의 지지기반 유지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었다.

개화기부터 시작된 부산의 근대학교 형성은 각 지역 주체자들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근대학교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량 왜관지역과 일본인 거류지에 설립된 심상소학교는 일본인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산거류일본인들이 설립 주체였다. 초량의 일본인 거류지 밖(오늘날 영주동)에 설립된 개성학교는 통역관을 지낸 선각자 박기종이 설립자였으며, 부산진지역의 학교는 호주장로교파의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부산진교회가 설립 주체였으며, 동래지역의 동명학교는 이임·무임직을 역임했던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던 동래기성회가 설립 주체였다.

개화기 부산 지역의 근대학교 형성은 중앙의 법제에 의해 실행되었다기보다 부산 내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지형적 특수성이 당시 학교 형성에 작용하였고, 부산항의 개항과 경부선 건설로 인한 많은 일본인의 유입이 학교 설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 계층 구성과 학교별 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가 개화기 부산의 근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당회록(堂會錄)』(초량교회)

『독립신문(獨立新聞)』

『황성신문(皇城新聞)』

### 2. 저서 및 논문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韓國民族文化』 26, 2009.

김 승, 「근대식민도시 부산의 형성과 발전」,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8.

\_\_\_\_\_,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2012.

김영우, 『한국 개화기의 교육』, 교육과학사, 1997.

김의환, 『부산근대교육사 <개항~일제치하>』, 태화출판사, 1967.

노영숙, 「개화기 선교사들의 기독교 교육이 근대 교육 문화에 기여한 교육적 의의」, 『기독교교육논총』 34, 2013.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東萊高等學校八十年史』, 동래고등학교, 1978.

동래학원, 『동래학원100년사(1895~1995)』, 동래학원, 1995.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편, 『東萊鄉校誌』,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2010.

- 박귀순, 「일제강점기 부산 일신(日新)여학교의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9(2), 2014.
- 박원표, 『釜山の 古蹟』, 현대출판사, 1965.
- 변광석, 「동래기영회의 활동과 변화를 통해본 지역성」, 『역사와 경계』 84, 2012.
- 부경역사 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歷史』, 선인, 2003.
- 부산근대역사관, 『사보담의 100년의 약속』, 근대역사관, 2009.
- \_\_\_\_\_,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근대역사관, 2010.
-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釜山近代學校關係資料集 - 私立東萊東明學校篇-』, 세종문화사, 1993.
- 부산박물관,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박물관, 2002.
- 부산봉래국민학교 동창회, 『蓬萊百年史』, 부산봉래초등학교, 1995.
- 부산부 부산교육회, 『부산교육 50년사』, 1928.
- 부산상업고등학교80년사 편집위원회, 『釜商八十年史』, 부산상업고등학교, 1975.
- 부산진교회, 『釜山鎭教會 100年史』, 부산진교회, 1991.
- 양홍숙, 「개항 후 초량 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 오미일, 「일제시기 白山商會의 창립과 변천」, 『嶺南學』 26, 2014.
- \_\_\_\_\_,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항도부산』 37, 2019.
- 윤건차, 『다시 읽는 조선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살림터, 2016.
- 윤경로, 「서울지역 개신교 교회창립 경위와 교인의 신앙양태 및 사회·경제적 성향」, 『서울학연구』 12, 1999.
-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교육 (1) -일본인 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3, 2005.
- \_\_\_\_\_,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지역과 역사』 19, 2006.
- 임지원, 「한말~일제시기 부산지역 기독교인들의 계층 구성과 지역 내 활동 -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44, 2009.
- 임화순, 「동래온천의 근대사적 의미」,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부산근대역사관, 2007.
- 전민호, 「헐버트(H. B. Hulbert)의 활동과 교육사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6(1), 2010.
- \_\_\_\_\_, 「유길준과 헐버트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39, 2011.

- \_\_\_\_\_,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2016.
- \_\_\_\_\_, 「개화기 서당교육의 전개」, 『한국교육학연구』 23(3), 2017.
- \_\_\_\_\_, 「개화기 유치원교육 연구」, 『교육문제연구』 32(4), 2019.
- 조선총독부 내부 학무국, 『조선교육요람』, 1915.
-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
- 조정민,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부산 관광의 표상과 로컬리티 - 지배와 향유의 바다-」, 『日本文化研究』 67, 2018.
- 초량교회, 『초량교회 100년사』, 1994.
- 최해군, 『釜山史探究』, 부산을 가꾸는 모임, 2000.
- 최혜주, 『정탐: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9.
- 황운, 「開化期釜山開成學校に関する研究 -『韓国(朝鮮)ニ於ケル學校關係(補助金支出之件)』の分析を中心に-」, 『일본어문학』 87, 2019.
- 天野郁夫, 『帝國大學』, 中公新書, 2017.

투고일 : 2021. 10. 20. 심사완료일 : 2021. 12. 03. 게재확정일 : 2021. 12. 07.

<부록>

부산 근대학교의 개설과 변화<sup>79)</sup>

\* 개화기부터 일제침략기까지 개설된 학교에 대해, 당시 학교명, 창립년도 및 당시 소재지, 현존 학교명 순으로 표시하였고, 표 아래에 1910년대까지의 학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력을 설명하였다.

1900년대 이전 (5개 학교)	1900년대 (21개 학교)	1910년대 (9개 학교)	1920년대 (6개 학교)	1930년대 (7개 학교)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 1877년 대청동 →남일초 →광일초	개양학교 1904년 동래 1907년 폐교	부산진공립보통학교 1911년 부산진	부산제7공립심상소학교 1921년 대청동 →동광초 →광일초	부산남부민공립보통학교 1932년 남부민동 →남부민초
사립부산개성학교 1895년 영주동 1909년 부산공립실업학교와 부산공립보통학교로 분리	다대포사립실용학교 1904년 다대포 →다대초	부산제2소학교 부산제2심상소학교 1910년 보수동 →화랑초	부산부민공립보통학교 1921년 중도정 →부민초	일정상업학교 1932년 →해동고
부산진일신여학교 1895년 좌천동 →동래여중·고	사립삼락학교 1906년 동래 1907년 동명학교로 개편	부산제4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0년 영선동	서면공립보통학교 1921년 서면 →성지초	화명간이학교 1935년 화명 →화명초
사립부산유치원 1897년 서정	부산제3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06년 수창정	부산공립중학교 1913년 초량 →부산중·고	부산제8공립심상소학교 1923년 범일동 →성남초	부산초량공립보통학교 1937년 초량 →초량초
동래부학교 1898년 동래 1903년 폐교	부산공립고등여학교 1906년 토성동 →부산여중·고	삼도여자고등실습학교 1913년 대청동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 1924년 보수동 →부산공고	동래공업실수학교 1938년 수영 →부산전자공고
	부산제5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06년 보수동	부산공립유치원 1915년 금평정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1927년 초량동 →경남여중·고	남항소학교 1939년 남항동 →삼합초
	부산제1공립상업학교 1906년 대신동 →경남상고→부경고	사립명진학교 1918년 사상 →사상초		부산제10공립심상소학교 1939년 대신동 →동신초
	사립동명학교 1907년 동래 →동래중·고	부산제6공립심상소학교 1919년 토성동 →토성초		
	동래공립보통학교 1907년 동래 →내성초	부산상업실천학교 1919년 광복동 →동주여중 →동주여상→여고		

79) 한국교육사상연구회(2001). 부산교육 10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부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부산광역시 각 학교 홈페이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1900년대 이전 (5개 학교)	1900년대 (21개 학교)	1910년대 (9개 학교)	1920년대 (6개 학교)	1930년대 (7개 학교)
	구포사립구명학교 1907년 구포 →구포초			
	사립화명학교 1908년 화명동 1918년 구포공립보통학교에 병합			
	초량사립소학교 1908년 초량			
	사립명륜학교 1908년 명륜동			
	사립명정학교 1908년 범어사 →급정중 →청룡초			
	낙동소학교 1908년 →대상초			<b>1940년대 (4개 학교)</b>
	사립옥성학교 1908년 영도 →목도공립보통학교 →영도초			경남성경학교 1941년 서대신동 →남성여고
	사립양정학교 1908년 하단 →사하초			부산제2공립중학교 1942년 →경남중·고
	사립좌천보통학교 1909년 좌천동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병합			부산공립제2공립학교 1944년 →경남공고
	김해사립녹명학교 1909년 녹산동 →녹명초			부산성북초등학교 1945년 →성북초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1909년 영주동 →부산상고·개성중→개성고			
	부산공립보통학교 1909년 영주동 →봉래초			
	사립동명학교 1909년 명지 →명지초			

**1. 부산제1공립심상소학교 (1877년 5월 1일 대청동 4정목)**

1912년 4월 1일 개교, 1946년 **남일국민학교**로 다시 개교

이후 1998년 동광초등학교와 병합하여 현재의 **광일초등학교**로 변경(중구 대청동)

2. **사립부산개성학교** [1895년 영주동, 초대교장 아라나미헤이치로(荻浪平治郎)]  
박기중선생이 설립한 부산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  
1897년 한국공립부산개성학교로 전환, 구관지교 등 여러 개의 지교와 보조교를 둠  
1907년 사립 부산개성일어학교로 전환,  
1909년 실업교육령 공포로 **부산공립실업학교**와 **부산공립보통학교**로 분리
3. **부산진일신여학교** (1895년 10월 15일 좌천동, 초대교장 M. S. Davies)  
호주 장로회 여자선교연합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부산지역 최초의 여자학교  
1905년 현 금성고교자리로 이전  
1909년 3년 과정의 고등과를 병설하여 고등과는 현 **동래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됨  
1925년 12월 23일 동래일신여학교로 변경, 동래구 복천동 500번지로 신축 이전  
1946년 9월 1일 동래여자중학교로 변경  
1951년 9월 1일 **동래여자중학교**와 **동래여자고등학교**로 분리(금정구 부곡3동)
4. **사립부산유치원** (1897년 3월 서정 1정목)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으로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설립
5. **동래부학교** (1898년 동래성 안의 한문소학교)  
1903년 폐교
6. **개양학교** (1904년 동래)  
동래부학교가 폐교되자 대성학교 교장인 일본인이 주선하여 초등학교 3년제 과정인 개양학교를 설립  
1907년 폐교
7. **다대포사립실용학교** (1904년 4월 1일 다대포 침사청, 초대교장 윤필호)  
1943년 5월 22일 다대포 공립초등학교를 개교  
1953년 8월 6일 부산 다대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  
1996년 9월 1일 현재의 **다대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사하구 다대동)
8. **사립삼락학교** (1906년 동래)  
동래기영회 회원들이 개양학교 개교에 대항하여 설립  
이후 1907년 개양학교와 합병하여 동명학교로 개편
9. **부산제3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06년 4월 1일 수창정)

**10. 부산공립고등여학교** (1906년 4월 1일 토성동 3정목)

1946년 9월 1일 부산공립여자중학교로 개칭

1951년 학제 변경으로 인해 부산서여자중학교와 **부산여자고등학교**(사하구 하단동)로 분리

중학교는 1951년 8월 29일 부산여자중학교로 교명을 변경

1973년 1월 30일 은하여자중학교로 다시 교명을 변경

1992년 2월 29일 지금의 **부산여자중학교**로 교명을 변경(서구 서대신동)

**11. 부산제5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06년 4월 1일 보수동 1정목)

**12. 부산제1공립상업학교** (1906년 4월 1일 대신동-현재 동신초등학교 자리)

1946년 4월 1일 경남공립상업중학교로 개칭

1951년 9월 1일 부산제1상업고등학교와 분리

1954년 3월 31일 **경남상업고등학교**로 개칭

2004년 9월 1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현재 **부경고등학교**로 변경(서구 서대신동)

**13. 사립동명(東明)학교** (1907년 동래)

1906년 설립된 삼락학교가 1907년 개양학교를 흡수하여 개명된 학교가 동명학교 이후 1916년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 개명

오늘날 **동래중학교**와 **동래고등학교**의 전신(동래구 칠산동)

1898년 9월 동래부학교 설립

1899년 9월 사립개명학교(일어학교) 창립

1904년 3월 사립개양학교로 변경

1906년 3월 18일 사립삼락학교로 변경

1907년 11월 5일 사립동명학교로 변경

1916년 10월 5일 사립동래 고등 보통학교로 변경, 4년제

1922년 4월 24일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 변경

1925년 4월 1일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로 변경, 5년제

1938년 4월 1일 공립동래중학교로 변경, 6년제

1951년 9월 1일 중·고등학교 분리

**14. 동래공립보통학교** (1907년 4월 1일 동래, 초대교장 박희명)

부산지역 최초로 설립된 공립보통학교(4년제), 처음에는 남학생만 수용  
동래보통학교(1910), 동래공립보통학교(1912), 동래제1보통학교(1925),

동래제1심상소학교(1938), 동래제1국민학교(1942)  
1947년 2월 28일 부산내성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96년 현재의 **내성초등학교**로 교명 변경(동래구 복천동)

**15. 구포사립구명학교** (1907년 10월 15일 구포, 초대교장 장우석)

1918년 구포공립보통학교로 변경  
구포지역 여학교인 정명의숙은 1915년 설립되어 1918년 구포공립보통학교에 흡수  
1935년 3월 1일 부설 화명간이학교가 설립  
1939년 4월 1일 구포구명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4월 1일 구포구명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96년 3월 1일 **구포초등학교**로 교명 변경(구교사: 현 구포맨션, 현교사: 북구 구포동)

**16. 사립화명학교** (1908년 11월 20일 화명동, 초대교장 윤대의)

1918년 공립학교령에 따라 구포공립보통학교에 병합

**17. 초량사립소학교** (1908년 초량)

**18. 사립명륜학교** (1908년 동래부 명륜동)

**19. 사립명정학교** (1908년 5월 1일 범어사 금어암, 초대교장 한흔해)

1916년 지방학림(중등정도) 개설  
1926년 3월 15일 범어사 금정불교 전문강원 개원  
1927년 사립명정보통학교로 개칭  
1931년 5월 1일 청룡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42년 4월 1일 청룡국립학교로 변경  
1996년 3월 1일 **청룡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금정구 청룡동)

1946년 3월 15일 금정초급중학교로 개칭(4년제)  
1950년 6월 1일 **금정중학교**(4년제)로 개칭(금정구 남산동)  
1951년 8월 31일 3년제 중학교로 변경

**20. 낙동소학교** (1908년 5월 1일 대저)

1945년 11월 1일 낙동공립학교로 변경  
1946년 6월 10일 대상국민학교로 변경  
1996년 3월 1일 **대상초등학교**로 변경(강서구 대저동)

- 21. **사립옥성학교** (1908년 영도, 초대교장 박치오)
  - 1916년 4월 1일 보통학교 규칙에 준해 옥성공립보통학교로 개칭
  - 1920년 4월 10일 **부산목도공립보통학교**로 교명 개칭
  - 1941년 4월 1일 부산목도공립국민학교로 개칭
  - 1945년 9월 28일 부산영도국민학교로 개칭
  - 1996년 3월 1일 현재의 **영도초등학교**로 교명 개칭(영도구 신선동)
  
- 22. **사립양정학교** (1908년 10월 6일 하단, 초대교장 이유진)
  - 1908년 개교 이후 하단공립보통학교로 이관
  - 1941년 4월 11일 사하공립국민학교로 개칭
  - 1996년 현재의 **사하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사하구 괴정1동)
  
- 23. **사립좌천보통학교** (1909년 좌천동), **공립부산진보통학교** (1911년 5월 3일 부산진)
  - 1907년 9월 7일 사립육영재사숙교육실시
  - 사립좌천보통학교가 1911년 5월 3일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병합
  - 현재의 **부산진초등학교**로 변경(부산진구 범천2동)
  
- 24. **김해사립녹명학교** (1909년 3월 1일 녹산)
  - 1935년 3월 5일 녹산공립보통학교 부설 화전간이학교로 변경
  - 1946년 9월 30일 녹명국민학교로 변경
  - 1996년 3월 1일 **녹명초등학교**로 변경(강서구 녹산동)
  
- 25.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1909년 4월 7일 영주동)
  - 1923년 서면 부전동으로 이전, 1989년 당감동으로 이전
  - 해방 후 **부산상업고등학교**로 변경되면서 **개성중학교**가 분리
  - 현재 **개성고등학교**로 변경(부산진구 당감동)
  
- 26. **부산공립보통학교** (1909년 6월 4일 영주동)
  - 개성학교에서 분리, 1996년 3월 1일 현재의 **봉래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27. **사립동명학교** (1909년 7월 25일 강서구 명지동)
  - 1923년 4월 17일 명지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1938년 4월 11일 명지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 1941년 4월 1일 명지공립국민학교로 개칭
  - 1996년 3월 1일 현재의 **명지초등학교**로 개칭(강서구 명지동)

**28. 부산제2소학교** (1910년 3월 20일 보수동 1정목)

1912년 4월 1일 부산제2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

1941년 4월 1일 부산제2공립국민학교로 변경

1946년 2월 28일 광신초등학교로 개교

같은 해 11월 15일 부산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로 변경

1962년 3월 1일 부산화랑국민학교로 변경

1996년 3월 1일 현재의 **부산화랑초등학교**로 개명(서구 동대신동)

**29. 부산제4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0년 4월 1일 영선동)

| Abstract |

A Study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odern School  
Formating in Busan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Choi, Doo-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odern schools in Busan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were affected and formed by region. Busan was a city centered on Dongnae(東萊) and Waegwan(倭館) before opening in 1876. In particular, Dongnae was a Yangban(兩班)-oriented society, and Waegwan was a place where Japanese people who traded with interpreters formed small villages. However,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Japanese residents have expanded their residence in the Busan area, and due to political pressure, Protestant missionaries have also entered the Busan Port to do missionary work. Busan's modern education was formed by Yangban, pioneer, missionaries, and Japanese people, divided into Dongnae, Busanjin, Choryang, and Japanese residence (in Choryang). In Dongnae area, Dongmyeong School was established with a focus on Yangban society-based society. In the Busanjin area, Ilshin School was establish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in Australia. In the Choryang area, Kaesong School was established by Park Ki-jong, a pioneer interpreter. The Shim Sang Elementary School was established for Japanese people in the Waegwan area. In this way, modern schools in Busan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were formed according to regional specificity, local resid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Key Words** : Busan education, the enlightening education, Shim Sang Elementary Shool, Gaeseng School, Ilsin School, Dongmyeong School